섬진강·영산강 '간흡충 주의보'

질병관리본부 "민물고기 생식은 금물"

섬진강 주민 18.4% 감염…지난해의 2배 수준

섬진강과 영산강 등 4대 강 유역 주민 100명 중 13명은 기생충에 감염됐으며, 이들 가운데 90%는 간흡충(간디스토마)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간흡충 감염 예방을 위해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섬진강과 영산강 등 4대 강 유역 6개 시·도 2만6천4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3.1%(3천412명)가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자 중 90.9%(3천102명)는 간흡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간흡충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민물고기 생식'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곡성과 보성, 장성, 광양 등 섬진강 유역 조사대상 주민 6천49명 중 18.4%(1천115명)는 간흡충 감염자로, 이는 4대 강 유역 평균감염률(11.9%)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곳 주민의 간흡충 감염률은 지난해(10.0%)보다 큰 폭으로 높아졌다.

나주와 영암, 함평, 무안 등 영산강 유역 조사대상 주민도 지난해(3.1%)보다 간흡충 감염률이 다소 높아진 4.0%로 나타났다. 금강과 낙동강 유역의 간흡충 감염률은 각각 16.8%와 10.2%를 나타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민물고기 생식 경험이 있는 주민이나 소화불량 등 기생충감염 자각증상을 느끼는 주민, 민물고기 조리판매자, 간흡충 치료 과거력이 있는 주민들은 감염률이 높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민물고기를 날로 먹지 않는 주민들도 간흡충 감염자로 나타난 만큼 물고기를 조리한 칼이나 도마 등 조리도구를 항상 청결히 유지해야한다"며 "감염 의심자는 보건소에서 검사와 함께 무료 투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간흡충 = 간과 담도 등에 기생하는 흡충류로 과거에는 입이 2개라는 의미의 '디스토마(Distoma)'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흡충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자연산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어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인체에 들어오면 간의 담관 안에서 기생한다.

무등산 옛길 1구간에 횡단보도 설치

등산객들 사고 위험

지난 5월 15일 복원 개방된 이후 교통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됐던 무등산 옛길 1구간(동구 산수 오거리~북구 금곡동 원효사·총 길이 7.75㎞)에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등산 옛길 1구간인 북구 두암동 무진 성터 동문과 북구 청풍동 청풍 쉼터 앞, 북구 금곡동 충장사(忠壯祠) 입구 등 횡단도로 3곳에 횡단보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들 3곳은 폭 10여m의 도로가 등산로를 끊고 있어 등산객들은 새벽이나 일몰 이후 도로 횡단시 위험성 등을 호소해 왔다.

무등산 옛길 1구간은 복원 개방된 이후 평일에는 300~400명, 주말·휴일에는 1천500명의 등산객들이 찾고 있다.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은 셈이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소장 임희진)는 10월 중순께 무등산 옛길 2구간(원효사~서석대·총 길이 4.12㎞)도 복원 개방할 예정이어서 무등산의 가을 단풍과 겨울 정취를 만끽하려는 등산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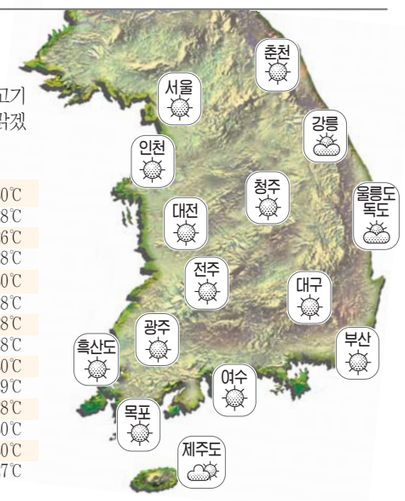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5분 해짐 18시 58분 달뜸 17시 36분 달짐 03시 34분

천고마비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 조금	18/30℃
목 포	구름 조금	19/28℃
여 수	구름 조금	20/26℃
완 도	구름 조금	17/28℃
구 례	구름 조금	15/30℃
해 남	구름 조금	16/28℃
장 흥	구름 조금	16/28℃
고 흥	구름 조금	18/28℃
순 천	구름 조금	16/30℃
영 광	구름 조금	17/29℃
진 도	구름 조금	17/28℃
전 주	구름 조금	16/30℃
남 원	구름 조금	13/30℃
흑산도	구름 조금	20/2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2.0~3.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밀물	썰물
목포	00:58 12:51	06:25 18:21
여수	07:43 20:22	01:55 13:4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날 씨						
최저/최고	18/29	20/30	20/30	20/31	20/31	19/29

전남도교육위원회 내분

개원식 취소 '빈축'

전남도교육위원회 위원들간 내분으로 올 후반기 첫 일정인 개원식이 취소돼 빈축을 사고 있다. 개원식에 초청된 역대 의장 3명과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한 외부 인사 20여명도 갑작스런 행사 취소로 헛걸음만 했다.

1일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개원식이 취소됐다. 위원 9명 중 서견용 의장 등 3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6명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날 개원식은 제 5대 도교육위원회의 올 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개원식이 취소됨에 따라 향후 교육위원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도교육감의 임기가 내달 25일 끝남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 교육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이 같은 갈등이 불거져 눈총을 사고 있다.

한 교육위원은 "의회를 이끌어야 할 의장이 개인적인 욕심만 챙기느라 의회 운영은 뒷전"이라며 "지난 5월 일부 위원과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려다가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취소했다. 이날 행사도 일주일 전부터 불참의사를 밝혔으나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의장과 위원들이 서로 눈 조차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라면서 "조만간 불신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서 의장은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안팎에선 "낙후된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서로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조대 총장직선제 폐지 11일 의결"

유수택 이사장 "정이사 민주적 인사 선임"

유수택 조선대 이사장이 오는 11일 열릴 조선대 이사회에서 총장직선제 폐지를 의결하겠다고 1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개강에 즈음한 학내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떤 비리집단도 대학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으로 추천된 인사들이 정이사로 선임되도록 하겠다"며 최근 교수·교직원·학생·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자협의 자신의 대학 운영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다.

유 이사장은 가능하면 11일 이사회에서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대화를 거쳐 바람직한 총장 선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대학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요청은 단순히 비리나 부정 적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새 출발을 위해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뜻이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 만큼 요청을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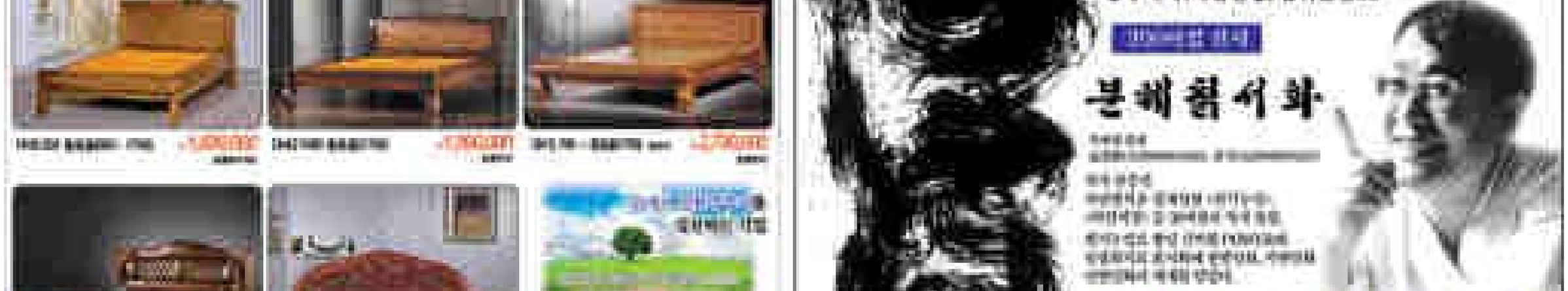
그는 또 "대자협 등 여러 기구와 대화하고 협의해 조선대가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고 발전을 향한 궤도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이사장과 대자협은 이날 오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진 총장직선제 폐지와 간부급 인사, 대학 감사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교육지표 사건 인권침해"

진실·화해위 밝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과 '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은 1978년 당시 전남대 국문과 송기숙 교수 등 교수 12명이 '국민교육헌장'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비교육적 상황을 규탄하는 성명서 '우리의 교육지표'를 작성해 해외 언론사와 대학가 등에 뿌린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중앙정보부 전남지부가 송 교수를 체포해 진술서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중앙정보부법에 열거된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결론 냈다. /채희종기자 chae@